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프랑스의 옐리엔 지루가 21일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땀방울이 내려찍는 경기장을 걷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코로나 19뿐 아니라 무더위와 높은 습도도 선수들을 괴롭힐 전망이다. 도쿄 | AP뉴시스

스포츠는 자신과 싸움이라고? 도쿄올림픽은 폭염과의 전쟁

최고 31도 이상 예보...습도 높아 숨 턱턱
최근 일상병 주의보...컨디션 조절 세번수

2020도쿄올림픽에선 날씨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미 선수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1일(한국시간) “전문가들이 올림픽 기간 폭염 가능성이 커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최근 일상병 주의보를 내렸다. 올림픽이 개막하는 이번 주 무더위와 함께 높은 습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미국 야후는 “멕시코(1968년)와 서울대회(1988년)의 경우 한 여름을 피해 9월에 개최한 바 있지만, 이번 올림픽은 가장 더운 8월에 열린다. 더위도 선수들이 이겨내야 할 상대”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쿄에 도착한 각국 선수단은 컨디션과 경기력 유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섭씨 32도가 넘고,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특히 마라톤선수들은 기본적인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뿐이 아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도쿄의 높은 습도가 새로운 환경이기에 적응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승마선수들은 말의 컨디션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날씨가 경기력에 직결되는 마라톤을 기온이 낮은 삿포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선수들이 좀더 시원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쿨링 미스트 머신을 통해 경기장 내 기온을 낮추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각국 선수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랐다. 여러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 선수촌 내 생활에도 제약이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폭염까지 예고돼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올림픽 관련기사 2·3·4·6면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밀워키, 50년 만에 NBA 챔피언 제패 ▶ 10면



스포츠동아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한국의 금빛 포문, 김학범호가 연다

오늘 오후 5시 뉴질랜드와 도쿄올림픽 축구 조별리그 1차전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이 22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첫 공식경기이기도 하다. 2012런던올림픽의 동메달을 넘어서는 성과를 노리고 있는 만큼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공식경기
타 종목 태극전사에게 큰 시너지
원샷원킬 황의조에 발빠른 엄원상
이강인표 불매급·세트피스도 강점
김학범감독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순간이 임박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9년만의 2번째 올림픽 메달을 향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한국은 22일 오후 5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서로를 ‘첫 승 제물’로 품고 있는 만큼 내용은 불필요하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90분이다. 김 감독은 결전을 하루 앞둔 21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첫 경기는 설레고 긴장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기대감이 크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경기는 아주 특별하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공식경기다. 기세 좋게 뉴질랜드를 뚫으면 다른 종목의 태극전사·남자들에게도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 모두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한국 일정 (B조)				
날짜	시간	상대	장소	
7.22	오후 5시	뉴질랜드	가시마 스타디움	
7.25	오후 8시	루마니아	가시마 스타디움	
7.28	오후 5시30분	온두라스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	

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김 감독은 힘주어 말했다.

●전력은 우위, 방식은 금물

모든 면에서 한국이 뉴질랜드에 앞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적 전력, 상대전적에서 우위에 있다. 대량득점과 시원한 승리를 기대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다. 뉴질랜드는 유럽파만 12명이다. 여기에 미국, 호주 등에서 커리어를 이어온 준족들도 즐비하다. 축구 인프라가 넉넉하지 않아 유소년 시절부터 함께 호흡한 선수들이 많아 팀워크도 좋다. 와일드카드로 발탁된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번리), 수비수 윈스턴 리드(웨스트햄)는 잉글랜드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뉴질랜드 축구의 영웅들이다. 김 감독이 “뉴질랜드는 A대표팀에 가깝다”고 경계한 이유다.

다만 굳이 긴장할 이유는 없다. 도쿄 입성에 앞서 아르헨티나(2-2 무)~프랑스(1-2 패)와 평가전을 치르며 ‘강팀 백신’을 맞은 한국이다. 기대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희망도 충분히 봤다. 김 감독은 “큰 경기를 앞두면 경직될 수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움츠리지 않고 멋지게 즐기며 놀아보자’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스피드&세트피스

올림픽대표팀은 스피드로 무장했다. 빠른 발로 둔탁한 힘의 축구를 구사하는 뉴질랜드에 실 틈 없이 위협을 가해야 한다. 전방위적 압박으로 볼을 많이 소유하고, 적극적 패싱 플레이로 흐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황의조(보르도)의 묵직한 한 방도 있으나 빠른 침투가 장기인 이동준(울산 현대)과 엄원상(광주FC), 영리한 공간 활용을 자랑하는 송민규(전북 현대) 등 공격 2선 원포워드들의 적극적 돌파와 좌우 풀백들의 끊임 없는 지원이 필수공식이다.

세트피스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강인(발렌시아), 이동준(울산), 권창훈(수원 삼성) 등 원발잡이들의 볼 배급은 ‘김학범호’의 비기다. 올림픽대표팀은 다양한 세트피스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장 이상민(서울 이랜드)은 “세트피스도 잘 맞춰가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필승의지를 드러냈다.

▶ 관련기사 2면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용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